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14. 대화체 어휘

김완일 목사 / 1994

성경공부 인도자가 사용하는 말은 쉬운 언어로 표현되어야 설득력과 전달효과를 높일 수 있다. 쉬운 언어란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대화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인 말과 문장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속도와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대화적인 말투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웅변체의 표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힘있게 전달할 수도 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삼천명이나 회개한 사건을 볼 때 조용한 낮은 목소리로 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웅변형의 전달은 그것이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사전달의 일방성과 전제적인 성격 때문에 비효과적이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잠재적인 대립감정을 가지고 있다. 대립된 감정상태는 대화를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 일방적이고 독백처럼 전달되는 메시지가 참석자의 마음과 인격을 사로잡을 수 없다. 고독과 내면적 공허를 가진 현대인들에게 그러한 전달방법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생활 속에서 메시지와 현실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참석자의 입장에서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있어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관념의 영역을 벗어나서 인생과 살아가는 것 자체를 다루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표현방법이며 매개체로써 이야기 (story telling)식 전달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자에게는 대화체 언어로써 참석자들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될 때 참석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다. 대화체 언어로 말할 때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이처럼 이야기식 전달은 화학작용을 일으키듯이 참석자의 마음과 인격을 흔들며 자아전체를 향해 설득력있는 영향을 주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이다. 이를테면 확인, 논쟁, 증언, 의미, 영향, 계약, 기풍 등 인간의 정서에 기본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하는 능력은 누구나가 같을 수 없다. 성경공부 인도자에게는 이야기하는 힘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재미있고 설득력있게 참석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는 정신적인 열정과 그림같이 생생한 이미지들로 꼭 차있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참석자들이 어느새 메시지에 사로잡혀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 온누리신문